

# 미국 풍력 전시회 Wind Power 2011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전경



출처 : KOTRA 시카고 KBC

미국의 대표적인 풍력산업 전시회인 Wind Power 2011이 2011년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애너하임에 위치한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이번 전시회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전시회 기간 동안 총 1만 6천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성황을 이룬 것으로 집계되었다.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70여 개국 1,150여개의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하였고 GE, Vestas, Clipper, Siemens 등 풍력 업계에서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이 모두 참여하였다.

Main Level, Lower Level, Outdoor Level 등 총 300,000 스퀘어 피트 규모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미 정부의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과 맞물려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의 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Vestas, GE 등 글로벌 터빈 제조업체들이 각각 3MW, 4MW 등 대용량 오프쇼어 윈드 터빈을 선보였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중공업, 대우선해양이 윈드 터빈과 함께 해상풍력단지 시공에 필요한 선박 모형을 전시하여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글로벌 타워 제조업체로 성장한 CS Wind와 단조부품의 세계적인 제조업체로 발돋움한 태웅 등 국내 10여개 기업이 참가하여 한국 풍력산업의 기술력을 선보였다. 외국 기업으로는 중국, 스페인, 덴마크, 독일 등이 개별 국가관으로 참가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프로젝트 개발, 해상풍력 전력 송전, 풍력개발지역 자원 평가, 윈드 팜 개발 평가 등 세부 분야의 컨퍼런스가 동시에 열려 일반 관람객도 풍력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미국 풍력협회(AWEA) Senior Analyst인 제시카 이삭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풍력 터빈 설치실적은 작년의 5,115MW를 넘어서서 6,000 ~ 7,000M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에는 대략 10,000MW에 육박하여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반영하듯, 풍력프로젝트 개발사, 시공사 등 실제로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관람객의 숫자가 2,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어 전시회에 출전 업체의 뜨거운 관심을 짐작케 할 수 있었다.

KOTRA는 금번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기업과 GE, GAMESA, Clipper, Enxco, DeWind 등 풍력분야 선도기업과의 1:1 상담기회를 마련하여 국내업계의 수출지원활동도 펼쳤다.

2012년 전시회는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6월 3일부터 6일까지 총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K**